

## ◆ 會員社 動靜 ◆

**LG産電(株) 창원공장 ISO 14001 인증 획득**

LG産電(株)(代表 : 李鍾秀)의 창원공장이 한국표준협회 품질인증센터(KSA-QA)로부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자판기, 쇼케이스에 대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창원공장의 인증 획득은 청주공장에 이어 두번째로 LG산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쏘사업장에 걸쳐 ISO 14001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LG산전 창원공장은 지난 '95년 환경경영 시범인증을 취득한 이후 1년에 걸친 전사원들의 지속적인 노력끝에 이번에 정식 인증을 획득했는데, 향후에도 보다 완벽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경영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폐기물 감축, 자원절약, 재활용 등을 생활화하고 폐기물 처리설비, 오염물질 감시시스템 등 환경설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ISO 14001이란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각국마다 다른 환경관리 기법과 관리체계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96년 9월1일부터 정식 인증에 들어간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으로 무역거래에 필수 요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現代重工業(株), 인도 디젤발전소 공사 수주**

現代重工業(株)가 인도 GMR社로부터 2억달러 규모의 디젤발전소 공사를 턴키베이스로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인도 남부의 항구도시인 마드라스市에 발전소를 착공, 98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는 3백MW급으로 디젤발전소로는 세계 최대규모이며 대형 엔진을 이용하여 전기를 일으켜 환경오염이 거의 없고 수력이나 화력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현대는 이 발전소에 자체 제작한 7만4천마력급(5만2천kW급) 초대형 저속엔진 4기를 공급하고 냉각열을 이용, 하루 1만t의 오염된 생활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환경보호장치를 갖출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세계적인 업체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것은 세계엔진의 23%를 공급하는 현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이번 수주를 통해 인도는 물론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 본격 진출할 기반을 닦게 되었다.

## 日進電機工業(株), 배전자동화 시스템 개발

日進電機工業(株) (代表 : 李 珍)가 배전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했다.

일진이 설치한 이 시스템은 배전선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고도 점검과 수리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신속을 요하는 배전사고에서 교통혼잡이나 접근이 어려워 수리가 늦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특히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채용했다.

즉 스그래픽과 한글문자를 통한 배전설비 조작방식 △추가적인 기능확장을 위한 개방형 구조 스케이블TV 광섬유 등 유선과 AM FM 무선통신 겸용방식 등을 채용했다.

이번 개발로 컴퓨터를 통한 조작으로 고장 발생시단 몇분 안에 복구가 가능해 정전시간 및 정전구역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전기와 관련된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원격감시 및 제어를 주기능으로 원격전압측정 원격검침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자동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도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6년까지는 쏘배전선로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한국전력 경기지사는 고장 발생시 수리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던 것을 5분 이내로 줄이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관제기능을 갖추게 됐다.

## (株)東南物産,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비철금속 주물 및 전기 기자재 전문 생산업체인 (株)東南物産(代表: 李炳均)가 한국 생산성 본부 인증원으로부터 송전, 변전, 배전 금구류, 광통신용 금구류, 가스절연 변전소용 차단기의 알루미늄 외함 과 도체류에 대한 ISO 9001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84년 8월에 설립된 동사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산화 한 것이며, 특히 가스 절연 변전소용 차단기의 알루미늄 외함(GIS TANK)은 독일과 일본등에서 수입 하던 것을 3년여에 걸쳐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4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ISO 9001 품질 인증획득을 계기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품질경영을 적극 도입하여 최상의 품질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신뢰받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방침이다.

## 極東電線工業(株), 美허벨과 전기부품회사 설립

전선 제조업체인 極東電線工業(株)(代表: 崔炳哲)가 세계적인 전기부품 제조회사인 美허벨그룹과 합작으로 전기부품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극동전선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이 회사 매출액은 연간 4백억~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전선은 『전기부품업 신규 진출을 위해 최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허벨그룹에 합작을 제의했다』며 『국내진출을 모색 중인 허벨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연내에는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극동전선은 내년 중 허벨그룹 계열사인 오하이오 브라스社와 우리나라에 자본금 5백만달러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지분은 양사가 50대50으로 똑같이 나눠 갖되 경영권은 극동측이 갖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고무로 만든 전기에자인 폴리마인슐레이터, 전봇대 변압기에 들어가는 컷아웃 스위치(COS), 피뢰기 등 고압전기 송전용 부대설비를 주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폴리마인슐레이터의 경우 한전이 부식성에 문제가 있는 자기에자리를 이 품목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시장규모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품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대체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허벨그룹은 지난해 11억달러 매출을 올린 종합 전기부품회사이며 합작대상인 계열사 오하이오 브라스는 폴리마인슐레이터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극동전선은 올해 7백20억원 매출액과 8억원 내외 경상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중견 전선제조업체이다.

## (株)光明制御, 원격유지 시스템 개발

원격유지시스템(RMS, Remote Maintenance System)으로 불리는 제어시스템이 (株)光明制御(代表: 韓喆愚)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번에 광명제어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플랜트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원격으로 공정상의 문제나 시스템 이상을 운전자에게 알려 자동제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2년간 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해 올 10월 RMS개발에 성공한 광명제어는 2개월 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초 본격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RMS는 소규모플랜트 전력설비에 사용될 시 전력계통을 단선으로 표시해 차단기의 상태및 각종 계측값(전류·전압·전력량)을 모니터에 나타냄으로써 설비의 이상유무를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빌딩내부의 조명배열상태를 알려줘 불필요한 조명을 손쉽게 판별, 소등시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공장자동화, 상하수도, 소각로, 변·발전소설비감시 등에 폭넓게 사용돼 시스템의 안전성과 통신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전, 철도청, 수자원공사 등에 기존 제어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광명제어는 내년초 RMS를 추가 설치, 기존제어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설립한 연락사무소를 거점으로 시장성이 큰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집중공략해 내년에 30억원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건설기계설비사업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업체를 통해서도 RMS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명제어는 올해 3백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RMS가 본격 시판되는 내년에는 4백50억원으로 판매목표를 늘릴 방침이다.

## 大成電線(株), 무역의 날 5천만불 수출탑 수상

大成電線(株)(代表: 梁始伯)가 무역의 날을 맞아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지난 61년 창업된 동사는 66년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출의 길을 열면서 30여년간 수출과 해외법인 설립등을 경영이념으로 표방 △현재수출성장을 30% △수출대상국 58개국에 전체 매출액중 40%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대성전선의 이같은 영예는 지난 93년 베트남 우정국과 합작한 VINA DAESUNG 설립 일본 나고야에 IMPORT CABLE 판매회사 설립과 함께 올해 중국 南寧에 설립한 통신케이블 공장준공등 중소기업으로서 모험적인 해외진출 노력에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시백사장은 「이번 5천만불 수출탑 수상은 수출지향에 대한 도전적 사고가 우선됐다」고 말하고 「차기회계년도에도 신노사관계 정착으로 생산성 향상을 경영목표로 삼아 수출보국의 명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성전선은 지난 92년 업계 최초로 ISO인증을 획득 기업의 품질력을 바탕으로한 대고객 만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